

답호를 응용한 여성용 코트 디자인 연구

A Study on Women's Coat Design using Dapho

김 월 계*
Kim, Weol Kye⁺

성신여자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의류학과 전임강사*
Full-time Lecturer, Division of Human Ecology, Dept. of Clothing, Sungshin Women's University⁺

Abstract

Short-sleeve clothes or sleeveless clothes which is usually worn after wearing basic costume is common in many countries, worldwide. Dapho is an outer garment which wear after putting on po(coat) like chupri or acjorum. And it is similar to junbok. Dapho is used with junbok and hou is a kind of junbok and it is also called as deugeure. According to the old record, queja was also used with the same meaning of junbok or dapho, which means dapho, junbok, hou and queja meant same costume. Costumes which adapted dapho is used in hanbok companies and not much of work done to make it as modern designed clothes. This study made 4 coats, one of modern women's costume which adapted feminine silhouette on shape of dapho's side slit and back slit's length difference and open shape and various git(collar), and sleeves' length goes wider when it is going down and flaring. Design points are quilted straight git from Munsu temple dapho, knife-shaped git from 15C, knot-button and long side slit from 19c. They transformed one side git or attachable git for various modern coordination. Because dapho is a design which has no or short sleeve, it doesn't matter clothes wore inside, so coat was chosen. And this costume would be an easy way to wear in modern society which hanbok is used as ceremonial costume. By this study it is hoped that information of beautiful traditional costume is spreaded and developed as a usual wear by making it modern designed and popularization of hanbok.

Key Words : sleeveless costume, short-sleeved costume, dapho, junbok, queja, hou

I. 서론

1. 연구의 목적

세계 여러 나라의 복식은 형태가 각각 다르며 고유의 문화를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각 문화마다 직접적인 교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비슷한 복식이 나타나기도 한다. 반소매(半袖衣) 또는 민소매(無袖衣) 복식이 이에 해당된다. 기본복식 위에 주로 착용하는 반소매나 민소매복식은 세계 여러 나라에서 착용되는 공통복식이라 볼 수 있다.

우리나라 반소매 복식은 통일신라로 거슬러 올라가 반비에서 그 명칭의 유래를 찾을 수 있다. 반비는 고려시대 답호가 되고 조선시대에는 답호, 전복, 호의, 쾌자, 배자 등으로 이어졌다. 반소매 또는 민소매 복식은 방한과 같이 실용적 목적과 함께 착용자의 품위를 높이거나 장식적인 목적으로 착용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반소매 또는 민소매 복식의 대표적인 예인 답호를 중심으로 포와 같은 길이의 복식이며 상호 연관성이 있는 전복, 호의, 쾌자를 함께 조사하였다.

답호와 관련된 선행연구로는 이봉숙(1983)¹⁾의 답호에 관한 연구와, 반비의 원류와 변천을 연구하면서 답호를 조사한 박두이(1998)²⁾의 연구, 단수의의 하나로 답호를 포함한 조우현(1981)³⁾의 연구, 조선시대 무수의의 하나로 분류한 이주열(1993)⁴⁾의 연구와 더그레라는 명칭으로 답호를 포함한 변지연(2006)⁵⁾의 연구 등이 있다. 이 중 변지연의 연구를 제외하고는 1980-1990년대에 이루어진 연구였으며 답호를 응용하여 디자인을 시도한 연구는 없었다.

답호는 다양한 형태의 깃이 달려 있거나 깃 없이 구성하기도 하였고 트임, 여러 가지 소매 길이와 시대별로 구별되는 형태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 특히 후기 유물은 아래로 갈수록 넓어지면서 플레이지는 밑단에서 여성스러운 실루엣을 느낄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답호를 응용하여 현대 여성복 중 코트로 디자인함으로써 현대인들이 생활 속에서 전통복식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한복이 예복으로 착용되는 오늘날에는 전통복식 형태 그대로를 평상복으로 착용하기는 어려우나 전통요소를 응용한 현대복식은 큰 무리 없이 입혀질 수 있으리라 사료된다. 또한 현대적인 디자인으로 재창조되었다 하더라도 본래의 복식에 대한 관심을 이끌어 낼 수 있으므로 전통복식에 대한 홍보와 복식문화에 대한 교육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작품디자인을 위하여 형태는 고려에서 조선까지 시대별로 특징적인 답호를 선정할 후 실용적이고 현대적인 소재를 이용하여 깃과 트임, 여밈 등의 디테일로 포인트를 주어 일상생활에 편하게 착용할 수 있도록 제작하고자 한다.

답호는 소매가 짧거나 없는 의복이므로 이를 응용한 겉옷인 코트는 속에 입은 옷에 구애 받지 않고 편하게 걸쳐 입을 수 있어 실용적으로 착용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되어 선택하였으며 겉옷으로 착용하도록 디자인 한 의복이므로 소매 길이에 상관없이 코트라고 명명하였다.

우리 민족은 오랜 역사 속에서 수준 높은 복식문화를 영위해 왔으며 다양한 조형적 요소를 지닌 전통복식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디자인 모티브로 응용되는 복식은 매우 한정적이라 할 수 있어 다양한 전통복식에 대한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잘 알려지지 않은 전통복식의 대중화와 정보 제공 및 현대적인 디자인 개발에 의의가 있으며 앞으로 더욱 많은 학자들과 디자이너들이 이러한 작업에 동참하기를 기대한다.

2. 연구의 방법 및 범위

본 연구는 가장 오래된 유물인 고려시대 문수사 답호를 포함하여 조선시대 답호와 전복, 쾌자, 호의 등을 문헌과 유물자료를 통하여 고찰한다. 고찰한 내용을 바탕으로 현대 한복에서 답호를 응용한 사례를 조사한다. 각 시대별로 구분되는 특징을 잘 나타내는 답호를 선정하여 현대 서양복에 접목시킬 수 있는 요소를 추출한다. 추출된 답호의 형태적인 특징을 현대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소재와 색채를 선정하여 현대 40대 여성이 실생활에서 착용할 수 있는 추동복 코트 4점을 디자인한다. 대상 연령을 40대로 선정한 이유는 한복이나 한국적 이미지의 디자인이 나이 들어 보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청장년층과 노년층을 제외하고 중년 전기에 해당되는 40대로 한정하였다.

소매 없는 복식에는 배자도 해당되나 배자는 현대 한복이나 한국적 이미지의 디자인에서 많이 응용되고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제외하였다.

II. 이론적 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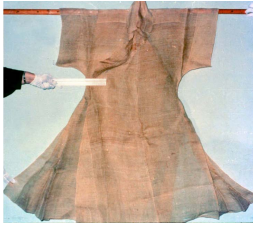
1. 답호의 개념 및 특징

답호는 첩리나 액주름포 등의 포 위에 착용하는 소매가 없거나 소매가 짧은 형태의 겉옷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답호는 후에 전복과 용어가 혼용되어 사용되었고 호의는 전복의 일종으로 군사들이 착용하였다. 쾌자 역시 전복이나 답호의 동의어로 쓰였다는 기록이 있어 답호와 전복, 호의, 쾌자가 같은 계통의 복식을 의미하며 다만 착용계층이 달랐고 시대별로 형태에 변화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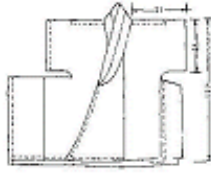
통일 신라 시대부터 착용되었던 반비는 고려시대에도 그대로 이어졌으며 고려 후기에 와서는 답호라는 명칭으로 바뀌어 사용된 것으로 추정된다.⁶⁾ 답호라는 명칭은 고려 말에 들어온 한어 학습서인 「老乞大」에서 찾아볼 수 있다.⁷⁾ 최남선의 「朝鮮常識」에는 “반비 곧 답호가 많이 군속(軍屬)의 입은 바입에 인하듯 언제부터인지 ‘전복(戰服)’이라는 변칭이 생겨...”⁸⁾라는 구절이 있어 답호는 고려 말에서 조선 전반에 걸쳐 답호라 불리다가 조선 후기에 이르러 착용범위가 군복으로 넓어지면서 전복이라는 명칭으로 혼용되어 사용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유희경·김문자(2000)는 “답호를 첩리나 액주름포 위에 덧입는 복식으로 조선시대에는 왕이 상복으로 착용하였고 후대에는 하급 군속이나 조례의 제복으로 착용되어 전복 또는 전포라 불리게 되었다”⁹⁾고 기록하였다. 김영숙(1999)은 “조선시대 왕과 문무관리들이 철릭 위에 입던 겉옷으로 소매가 없고 길이가 길며 무나 쏠이 없이 뒷술기를 허리에서 아래까지 튼 형태이다.”¹⁰⁾ 라고 정의하였다.

이상에서 볼 때 답호는 통일신라시대부터 착용되었던 반비에서 유래하여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 후기까지 답호라고 불리웠던 복식으로 조선시대에는 왕의 상복으로 착용되거나 문무 관리들의 겉옷으로 철릭이나 액주름포 위에 덧입던 소매가 없고 길이가 긴 복식이라 정의할 수 있다. 그리고 조선시대 후기 이후 하급군속이나 조례의 제복으로 착용되면서 명칭이 전복과 혼용되었다.

답호의 변천과 형태적인 특징을 살펴보기 위하여 시대별로 구분되는 특징이 있는 유물을 선정하여 조사하였다. <그림 1>은 고려시대 유물로 문수사에서 발견된 가장 오래된 답호이다. 이 답호는 짧은 소매가 달려있으며 우입에 깃 중앙에 선이 들어간 직령식의 이중깃이 달려 있다. 양옆에 무가 있으며 포와 같이 길며 아래로 갈수록



<그림 1> 문수사 답호
(출처: 『한국복식문화사』,
2002, p.154)



<그림 2> 정응두 답호
(출처: 『더그레에 관한 연구』,
2006, p.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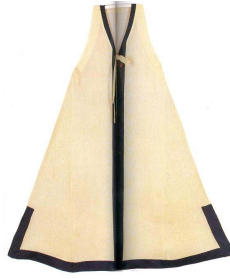
<그림 3> 탐릉군 답호
(출처: 『한국복식2천년』,
1997, p.116)



<그림 4> 의원군 답호
(출처: 『조선의 옷매무새』,
2002, p.27)



<그림 5> 밀창군 답호
(출처: 『더그레에 관한 연구』,
2006, p.17)



<그림 6>정원용 답호
(출처: 『한국복식2천년』,
1997, pp.68-69)



<그림 7> 주의와 답호
(출처: 『한국복식문화사』,
2002, p.347)

록 플레이지는 형태였다. <그림 2>는 정응두(1508-1572)의 답호로 이중칼깃에 반소매이며 무를 평행하게 단 후 앞뒤의 무가 서로 마주보도록 접어 넣어 아래쪽을 향하도록 박고 그 아래는 튼 형태이다. 탐릉군(1636-1731)의 답호는 소매 없이 어깨가 좁고 칼깃이 달려 있으며 여밈은 여전히 깊이 여며졌으며 고름 한쌍이 달려 있었다 <그림 3>. <그림 4>는 의원군(1661-1722)의 답호¹¹⁾로 전복¹²⁾으로 보기도 하는데 소매가 없고 사각의 맞깃에 좌우가 여며지지 않는 형태이며 매듭단추로 여미게 되어 있다. 결감의 앞 중심선, 도련, 옆선 위에 선 장식을 덧단 것이 특징적이다. <그림 5>는 밀창군(1677-1746)의 답호로 맞깃에 짧은 소매가 달려 있고 옆이 트인 형태였다. <그림 6>은 정원용(1783-1873)의 답호로 목둘레에서부터 밑단과 옆트임 부분까지 검정색의 선을 둘러 장식하였고 고름으로 여미도록 되어 있다. <그림 7>은 갑오경장 이후 관복 간소화에 따라 주의 위에 답호를 착용한 모습이다.¹³⁾ 이상에서 살펴본 바를 종합하면 답호는 반소매에 직령이나 칼깃이며 길게 여미던 형식에서 점차 소매 없이 어깨가 좁아지는 형태, 그리고 맞깃의 여며지지 않고 무와 쇠이 없는 형태로 변화하게 되었다. 말기의 것은 깃이 없이 어깨가 좁고 아래로 갈수록 넓어져 전복과 비슷한 형태였다.

2. 답호 및 관련복식의 변천과정

후에 호칭이 달라지는 답호와 전복은 조선 시대 말기에 와서 형태에 차이가 있었다. 유희경·김문자(2000)는 “답호의 경우 어깨와 진동선이 넓었고 전복은 좁은 것이 다르며 무와 쇠이 없고 뒤 중심선에서 허리 아래 부분이 트여 있다는 점은 같았다”¹⁴⁾고 하여 군복으로 착용할 때와 편복포 위에 착용할 때 형태상 차이가 있었음을 언급하고 있다. 김영숙(1999)은 전복을 “조선시대 무관들이 군복으로 속에 동달이를 입고 착용하는 것으로 소매



<그림 8> 최원립 누비 전복
(출처: 『17세기 조선 무관의 차림새』, 2006, p.38)



<그림 9> 철종어진, 왕의 전복 착용 모습
(출처: 『한국복식문화사』, 2002, p.20)



<그림 10> 정원용 전복
(출처: 『한국복식2천년』, 1997, p.69)



<그림 11> 구군복
(출처: 『한국복식2천년』, 1997, p.67)

와 섹이 없이 양 옆선의 일부와 등솔기가 허리에서 아래까지 트인 형태¹⁵⁾라고 정의하였다. 유물을 중심으로 전복의 특징을 살펴보면 먼저 <그림 8>은 최원립(1618-1690)의 누비 전복으로 길이 없으며 매듭단추 3개로 여미는 형태에 양옆과 뒤에 트임이 있었다. <그림 9>는 철종(1831-1863)의 구군복으로 동달이 위에 양어깨와 가슴, 등에 용보가 달린 전복을 착용하고 수를 놓은 광대 위에 남색의 전대를 맨 모습이다. <그림 10>은 정원용의 전복으로 목둘레가 V자형으로 파였으며 등 아래가 트이고 앞여밈은 매듭단추 2개로 여미도록 되어 있다. <그림 11>는 정원용의 구군복으로 동달이 위에 전복을 입은 것처럼 주황색과 홍색을 이어 붙인 소매 위에 흑색 전복을 붙인 형태이다.¹⁷⁾ 최원립과 철종, 정원용의 전복을 비교해 보면 후대로 갈수록 어깨가 좁아지고 목둘레 선이 V자 형으로 깊게 파였으며 무가 넓어지면서 도련이 넓어진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조선시대 말기에는 동다리와 전복의 일체형 복식이 존재하였음을 알 수 있다.

김영숙(1999)은 “호의(號衣)를 조선시대 전복의 하나로 보며 각 영문(營門)을 지키는 군사, 나장(羅將)은 짧은 소매의 것을 착용하였고 마상재군(馬上才軍)은 소매가 없는 것을 착용한 복식¹⁸⁾이라고 정의하였다. 또한, 호의는 조선시대 일반군졸들이 착용했던 의복으로 각 방위에 따라 오방색으로 군대의 소속을 표시하며 국말까지 입혀졌다는 기록이 있어¹⁹⁾ 호의는 상류계층이 아닌 군사들이 착용하는 짧은 소매의 복식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형태는 등근 것에 옆이 트인 세 자락 옷 <그림 12>으로 길이는 포와 같거나 약간 짧았다. 소매는 <그림 12>과 같이 없거나 <그림 13>와 같이 짧은 소매가 있었다.



<그림 12> 호의
(출처: 『조선왕조 궁중의궤복식』, 1991, p.132²⁰⁾)



<그림 13> 호의
(출처: 『조선왕조 궁중의궤복식』, 1991, p.1)



<그림 14> 쾌자
(출처: 『조선왕조 궁중의궤복식』, 1991, p.48)



<그림 15> 쾌자
(출처: 『조선후기 궁중연향문화 권2』, 2005, p.348²¹⁾)



<그림 16> 쾌자
(출처: 『조선시대 풍속화』, 2002, p.162²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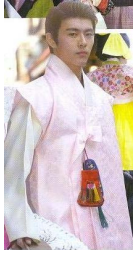
쾌자는 전복과 유사한 형태로 왕실에서부터 하급계층까지 착용한 의복이다. 조선 말 순종 가례 시 '쾌자와 군복 일작'이라 하여 군복에 함께 착용하는 경우에는 전복을 지칭함을 알 수 있고 '쾌자와 주의 일작'이라 하여 두루마기 같은 편복포와 함께 착용할 경우에는 답호와 동의어로 사용되었다고 볼 수 있다.²³⁾ 즉 쾌자는 군복과 함께 착용할 경우 전복이라 불렀고 편복포와 함께 착용할 때는 답호와 동의어였음을 알 수 있다. 형태는 <그림 14>의 뒷모습에서 볼 수 있듯이 양 옆과 뒤 중심에 트임이 있는 네 자락 옷이며 <그림 1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여밈이 서로 마주보는 형태의 의복임을 짐작 할 수 있다. 즉 쾌자는 전복의 동의어로 보거나²⁴⁾ 답호와 유사어로 보거나 호의의 속칭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²⁵⁾ <그림 16>은 무녀들이 쾌자를 착용하고 검무를 추는 모습으로 남자 뿐 아니라 여령·무녀들도 착용한 복식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견해를 종합해 볼 때 쾌자는 소매가 없는 맞깃형의 네 자락 겹옷으로 볼 수 있으며 착용계층은 남자는 왕에서부터 하급 계층까지, 여자는 일부 계층에서 착용하였던 복식임을 알 수 있다.

3. 답호를 응용한 현대복식 디자인 분석

이 장에서는 현대에 응용된 답호 관련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현대인에게 적합한 디자인을 유추해 내고자 하였다.

현대에 응용된 답호 디자인은 한(韓)스타일 추진과 같이 정부차원의 육성사업이 시작되고 이와 맞물려 우리 문화에 대한 관심이 대중화되기 시작한 최근 2005년 이후 디자인으로 한정하여 잡지와 인터넷에서 조사하였다. 디자인 선정 기준과 방법으로는 대표적인 검색엔진인 네이버와 다음, 엠파스, 야후코리아를 통하여 한복디자인 및 한복연구모임, 공모전 작품을 중심으로 조사하였다. 현대 답호 관련 디자인은 서양복에 응용한 경우는 찾아보기 어렵고 한복에 응용된 경우가 많았다. 특히 일반 패션 관련 잡지에서는 답호응용 자료를 찾기 어려워 월간 『한복의 미』를 중심으로 조사하였다. 한복에 응용된 답호 관련 반수의 또는 무수의 복식은 소매가 짧게 달려 있는 경우엔 쾌자로 보고 소매가 없는 경우엔 답호나 전복의 응용으로 설명되어 있었다. 작가의 설명이 없을 경우엔 어떤 복식을 응용한 것인지 추측하기 어려웠다. <그림 17>은 답호를 응용한 것으로 보여지며 칼깃에 짧은 소매가 있고 고름으로 여밈은 형태이다. <그림 18>는 전복의 형태를 응용한 것으로 보이며 깃과 여밈 부분 없이 서로 마주보는 형태로 매듭단추 여민 후 허리에 넓은 대를 전대와 같이 둘러 고정하였다. <그림 19>은 쾌자의 응용으로 보이며 비치는 소재를 이용하여 소매와 깃을 두 장으로 구성하였다. 앞 단은 서로 여미어지지 않으며 가슴 앞에서 매듭단추로 여민 후 아래로 갈수록 자연스럽게 벌어지도록 되어있고 옆선은 트였다. 쾌자 위에는 꽃문양을 그려 넣어 여성스럽게 표현하였다. <그림 20>은 조선 말기 전복과 같이 앞길이 마주보는 형태이며 맞깃에 여밈은 자수 장식의 매듭단추로 여몄다. 아래로 갈수록 자연스럽게 넓어지는 형태로 옆선은 완전히 트여있다. <그림 21>는 전복 또는 답호를 응용한 것으로 보이며 맞깃에 앞이 서로 마주보는 형태이다. 허리에 색을 달리하여 대를 하고 여밈 부분에 자수 보를 달아 장식하였다. <그림 22>의 남자는 반소매의 쾌자 응용 복식으로 둥근 깃에 색을 달리 한 고름을 달아 여몄다. 속에 입은 두루마기와 같은 길이었으며 옆선은 트였다.

답호를 응용한 현대복식은 기본 복식인 치마저고리나 바지저고리 또는 두루마기까지 입은 후 착용한 경우로 전통 복식을 유지하면서 소재나 디자인, 색채와 장식을 현대화 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소매가 약간 있는 형태를 쾌자라 지칭하고 소매가 없는 복식은 전복이나 답호의 응용으로 설명하고 있어 정확한 이론적 연구 없이 단편적인 특징을 응용한 것으로 보였다. 답호 응용 복식은 남녀 한복에서 모두 볼 수 있었으며 전통답호의 특징인 칼깃과 맞깃이 사용되었다. 또한 둥근 깃도 있었는데 이는 현대 한복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형태를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여밈은 전통 형태에 쓰인 고름과 매듭단추를 사용하였고 앞이 포개어지는 경우엔 고름으로, 좌우



<그림 17> 담호 응용 복식 (출처: 『한복의 미』, Vol.56, p.6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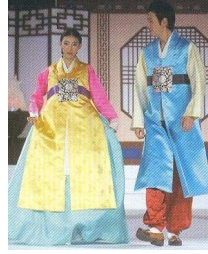
<그림 18> 전복 응용 복식 (출처: 『한복의 미』, Vol.47, p.81)



<그림 19> 캐자 응용복식 (출처: 『한복의 미』, Vol.35, p.47)



<그림 20> 전복 응용 복식 (출처: 『한복의 미』, Vol.53, p.61)



<그림 21> 전복 담호의 응용 (출처: 『한복』, Vol.54, p.74)



<그림 22> 캐자 응용 복식 (출처: <http://blog.naver.com/minhanbok1>)

길이 마주보는 경우엔 매듭으로 여렸다. 길이는 포와 같은 길이어거나 무릎 길이로 짧았다. 트임은 옆트임이 있었으며 뒷모습을 볼 수 없어 뒤트임 여부는 알 수 없었다. 소매는 없거나 반소매였으며 자수 장식이나 그림을 그려 넣어 장식한 것은 원형과 달랐다.

현대에 나타난 담호 관련 디자인들을 분석한 결과 응용사례들은 모두 한복 디자인으로 그 대상이 담호, 전복, 캐자, 호의 중 어느 복식을 응용한 것인지 식별하기가 어려웠다. 형태는 대개 조선 말기 복식을 차용하였고 소재와 장식, 색채 등은 현대적으로 구성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조선말기 복식을 포함하여 시대별로 대표적인 유물을 선정한 후 한복이 아닌 현대복식에 담호의 특징을 접목시켜 실생활에서 착용할 수 있도록 디자인하고자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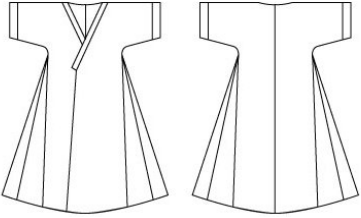



III. 담호를 응용한 여성용 코트 디자인

앞서 살펴본 담호의 특징을 살려 현대생활에 맞는 40대 여성의 추동용 코트 4점을 디자인 하였다. 형태는 전체적으로 전통형태를 그대로 사용하거나 부분 변형하였고 소재는 겨울용 울소재를 사용하여 코트로서의 기능성을 살리면서 누빔 소재를 부분적으로 섞어 변화를 주었다. 현대적인 분위기의 울소재와 전통느낌의 누빔 소재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두 소재의 색채는 같거나 톤을 맞추어 사용하였다. 편하게 걸쳐 입을 수 있는 외투이므로 속에 입은 옷의 색채와 쉽게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무채색 중 회색을 메인 컬러로 선정하여 사용하였다.

시대별로 특징을 보여 줄 수 있는 담호로 가장 오래된 유물인 고려시대 문수사 담호와 무가 특징적인 조선 전기 정응두(1508-1572)의 담호 그리고 앞길이 포개지지 않는 형태로 변한 이후의 유물로 조선이 일직선을 이루는 밀창군(1677-1746)의 담호, 좁은 어깨와 넓은 도련이 특징인 조선 말기의 정원용(1783-1873)의 담호를 응용하여 코트를 디자인하였다. 구체적인 디자인 요소로 깃·지령, 칼깃, 맞깃, 무, 트임, 여밈 방법, 소매 길이 등을 사용하였다.

1. 작품 1

고려시대 문수사에서 발견된 가장 오래된 담호를 응용한 코트 디자인이다. 형태는 원형의 반소매와 무, 실루엣은 그대로 활용하고자 하였다. 부분적으로 소매는 7부 길이로 원형보다 길게 구성하였고 직령식의 이중깃을

작품 1 - 40대 여성의 추동용 코트			
컨셉	포인트	소재	색채
문수사 답호 응용	누비천의 직령 이중깃	울, 폴리에스테르 혼방 누비	회색
도식화		인체착장모습	
			
작품 완성 사진(앞/뒤/부분)		코디네이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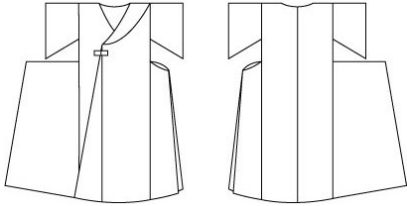



직령은 유지하면서 누비 소재로 세로선을 살려 이중깃의 느낌을 주었다. 여밈은 인쪽에 안고름을 달아 묶고 겉에서는 똑딱단추로 고정하였다. 주 소재는 겨울용 울소재를 사용하였으며 깃에 사용한 누비소재를 소매 끝과 무에 함께 사용하므로 현대적인 소재와 전통적인 소재가 조화를 이루도록 하였다. 색채는 무채색 중 회색을 사용하여 다른 색의 의복과 쉽게 조화를 이루도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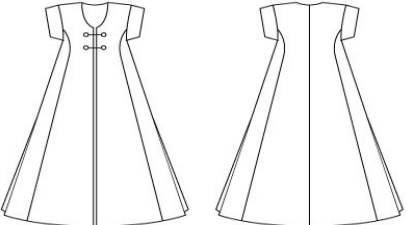



2. 작품 2

조선 전기 출토 정응두의 답호를 응용한 디자인으로 원형에 사용된 칼깃을 그대로 사용하되 걸 길에만 달아 변화를 주었고 소매는 아래로 갈수록 넓어지게 구성하였다. 조선 전기 복식의 특징적인 무의 형태를 응용하여 무를 접어 고정시킴으로 옆선에 포인트를 주었다. 여밈은 똑딱단추로 하였고 위에 작은 고름 고 모양의 장식을 덧달았다. 몸판과 깃은 누비소재로 하고 앞섶과 소매, 무는 누비지 않은 폴리에스테르 혼방소재를 사용하였다. 색채는 녹색 빛이 도는 회색을 전체적으로 사용하였다.

3. 작품 3

조선 후기 밀창군의 답호와 말기 정원용의 답호를 응용하여 도련이 자연스럽게 퍼지는 말기 답호의 실루엣에 밀창군 답호에서 볼 수 있는 짧은 소매를 달고 두 답호의 공통된 특징인 마주보는 앞길의 형태로 구성하였다. 여밈은 매듭단추로 하였고 앞 뒤판의 중간 부분은 누비로 구성하고 깃과 소매, 양 옆선은 누비지 않은 울소재를 사용하였다. 색채는 회색톤을 하였고 매듭단추는 검정색으로 달아 포인트를 주었다.

작품 2 - 40대 여성의 추동용 코트			
컨셉	포인트	소재	색채
조선전기 출토 정응두의 담호 응용	칼깃을 길길에만 부착	폴리에스테르 혼방, 폴리에스테르 혼방 누비	녹회색
도식화		인체착장모습	
			
작품 완성 사진(앞/뒤/부분)		코디네이션	
			

작품 3 - 40대 여성의 추동용 코트			
컨셉	포인트	소재	색채
밀창군의 담호와 조선 말기 정원용의 담호 응용	짧은 소매, 매듭단추, 긴 옆트임	울, 폴리에스테르 혼방 누비	회색
도식화		인체착장모습	
			
작품 완성 사진(앞/뒤/부분)		코디네이션	
			

4. 작품 4

조선 시대 말기 정원용의 전복을 응용한 디자인으로 소매가 없으며 도련으로 갈수록 넓어지는 특징을 살려 디자인하였다. 원형과 같이 V 네크라인으로 구성하였으며 탈부착이 가능한 칼라를 덧달아 다양한 연출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여밈은 끈으로 하여 고름처럼 또는 리본형태로 묶을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앞 뒤판의 가운데 부분은 울소재를 사용하였으며 양옆선은 누비소재를 사용하여 실루엣을 살렸다. 색채는 작품 1과 동일한 회색을 사용하였다.

작품 4 - 40대 여성의 추동용 코트			
컨셉	포인트	소재	색채
조선 말기 정원용의 전복을 응용	깃 위에 탈부착이 가능한 칼라를 덧달아 다양한 연출 가능	울, 폴리에스테르 혼방 누비	회색
도식화		인체착장모습	
			
작품 완성 사진(앞/뒤/부분)		코디네이션	
			

완성된 작품은 바디와 인체에 착장하여 앞뒤 모습과 부분을 확대하여 촬영하였다. 그리고 실생활에서 누구나 가지고 있을 만한 흰색과 검정색의 폴로넥 셔츠, 검정색 바지와 스커트, 검정 스타킹을 신은 상태의 이너웨어를 활용하여 각각 연출하였다. 회색톤을 주조로 소매의 길이를 달리하여 디자인한 4점의 작품들은 착용한 이너웨어

의 색상, 치마나 바지에 관계없이 잘 어울릴 수 있었으며 앞을 여미거나 여미지 않고 편하게 걸쳐 입을 수 있어 현대 생활에서 실용적으로 또한 대중적으로 착용될 수 있는 디자인이라 생각된다.

IV. 결 론

담호는 무수의 또는 반수의 복식의 대표적인 명칭으로 그 원류는 통일 신라 시대 반비에서 찾을 수 있으며 고려시대 담호와 조선시대 담호, 전복, 쾌자, 호의 등의 복식으로 이어졌다. 이와 같은 복식은 시대별로 깃과 소매의 길이, 트임, 무 등에 특징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으며 특히 조선 후기의 유물들은 아래로 갈수록 플레이져 여성스러운 실루엣을 이루고 있어 여성복 디자인에 활용하기에 적합하다고 사료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담호를 중심으로 전복, 쾌자, 호의에 대하여 조사하고 특징을 찾아내어 현대 여성복 코트로 디자인함으로써 전통복식을 실생활에서 착용할 수 있는 기회와 전통복식에 대한 정보도 함께 제공하고자 하였다.

담호는 반소매에 직령이나 칼깃이며 깊게 여미던 형식에서 점차 소매 없이 어깨가 좁아지는 형태, 그리고 맞깃의 여미지지 않고 무와 섶이 없는 형태로 변화하게 되었다. 말기의 것은 깃이 없이 어깨가 좁고 아래로 갈수록 넓어져 전복과 비슷한 형태였다. 담호는 첩리나 액주름포 등의 포 위에 착용하였고 후에 전복과 용어가 혼용되어 사용되었다. 호의는 전복의 일종으로 군사들이 착용하였다. 쾌자 역시 전복이나 담호의 동의어로 쓰였다는 기록이 있어 담호와 전복, 호의, 쾌자가 같은 계통의 복식을 의미하며 다만 착용계층이 달랐고 시대별로 형태에 변화가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현대복식에 응용된 담호 디자인을 2005년 이후 작품으로 잡지와 인터넷을 통하여 조사하였는데 현대 서양복에 응용한 경우는 찾아보기 어려웠고 한복에 응용된 경우가 많았다.

담호를 응용한 40대 여성의 추동용 코트로 4점을 제작하였는데 코트는 누구나 쉽게 걸쳐 입을 수 있는 아이템이라 생각되어 선정하였고 시대별로 구별되는 형태 특징이 있는 담호를 선택하여 원형을 유지하면서 부분적인 디테일에 변화를 주었다. 소재는 울소재와 누비소재를 혼합하여 사용하였고 색채는 무채색 중 회색을 주조색으로 톤의 변화를 주어 사용하므로 현대 실생활에서 착용하기에 무리가 없도록 하였다.

현대에는 서양복이 평상복으로 착용되므로 전통복식 형태 그대로를 평상복으로 착용하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아름다운 우리 전통복식의 요소를 응용한 디자인의 복식은 평상복으로 무리 없이 입혀질 수 있으리라 생각하였다. 또한 현대적인 디자인으로 재창조되었다 하더라도 착용자들에게 본래의 복식에 대하여 알 수 있는 기회가 됨으로써 전통복식에 대한 홍보와 복식문화에 대한 교육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일부 담호 유물과 잡지, 웹사이트 자료만을 대상으로 연구하였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앞으로 더욱 다양한 전통복식의 아름다움을 찾아내어 현대적인 디자인으로 개발하는 연구가 많아져 우리복식의 특징을 살린 복식을 실생활에서 착용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 1) 이봉숙 (1983). 담호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1-86.
- 2) 박두이 (1998). 반비의 원류와 변천에 관한 연구 -한국과 중국의 반비를 중심으로-,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석

사학위논문, pp.1-129.

- 3) 조우현 (1981). 우리나라 단수위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1-69.
- 4) 이주열 (1993). 조선시대 무수위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1-75.
- 5) 변지연 (2006). 더그레에 관한 연구,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1-89.
- 6) 유희경, 김문자 (2000). 한국복식문화사, 서울: 교문사, p.153.
- 7) 변지연 (2006). 앞의 논문, p.8.
- 8) 위의 논문, p.26.
- 9) 유희경, 김문자 (2000). 앞의 책, p.235.
- 10) 김영숙 (1999). 한국복식문화사전, 서울: 미술문화, p.122.
- 11) 변지연 (2006). 앞의 논문, p.16.
- 12) 경기도박물관 (2002). 조선의 옷매무새, 서울: 민속원, p.28.
- 13) 유희경, 김문자 (2000). 앞의 책, p.348.
- 14) 위의 책, p.236.
- 15) 김영숙 (1999). 앞의 책, p.329.
- 16) 권오창 (1999). 조선시대 우리옷, 서울: 현암사, p.52.
- 17) 국립민속박물관 (1997). 한국복식2천년, 서울: 국립민속박물관, p.67.
- 18) 김영숙 (1999). 앞의 책, p.407.
- 19) 변지연 (2006). 앞의 논문, p.44.
- 20) 유송옥 (1991). 조선왕조궁중의궤복식, 서울: 수학사, p.13.
- 21) 한국학중앙연구원 (2005). 조선후기 궁중연향문화 권2, 서울: 민속원, p.348.
- 22) 국립중앙박물관 편저 (2002). 조선시대 풍속화, 서울: 한국박물관회, p.162.
- 23) 위의 책, p.6.
- 24) 김영숙 (1999). 앞의 책, p.374.
- 25) 김은정 (2006). 어휘집을 중심으로 본 조선시대 복식명칭 분석,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8.